

변 상 환

Byun Sang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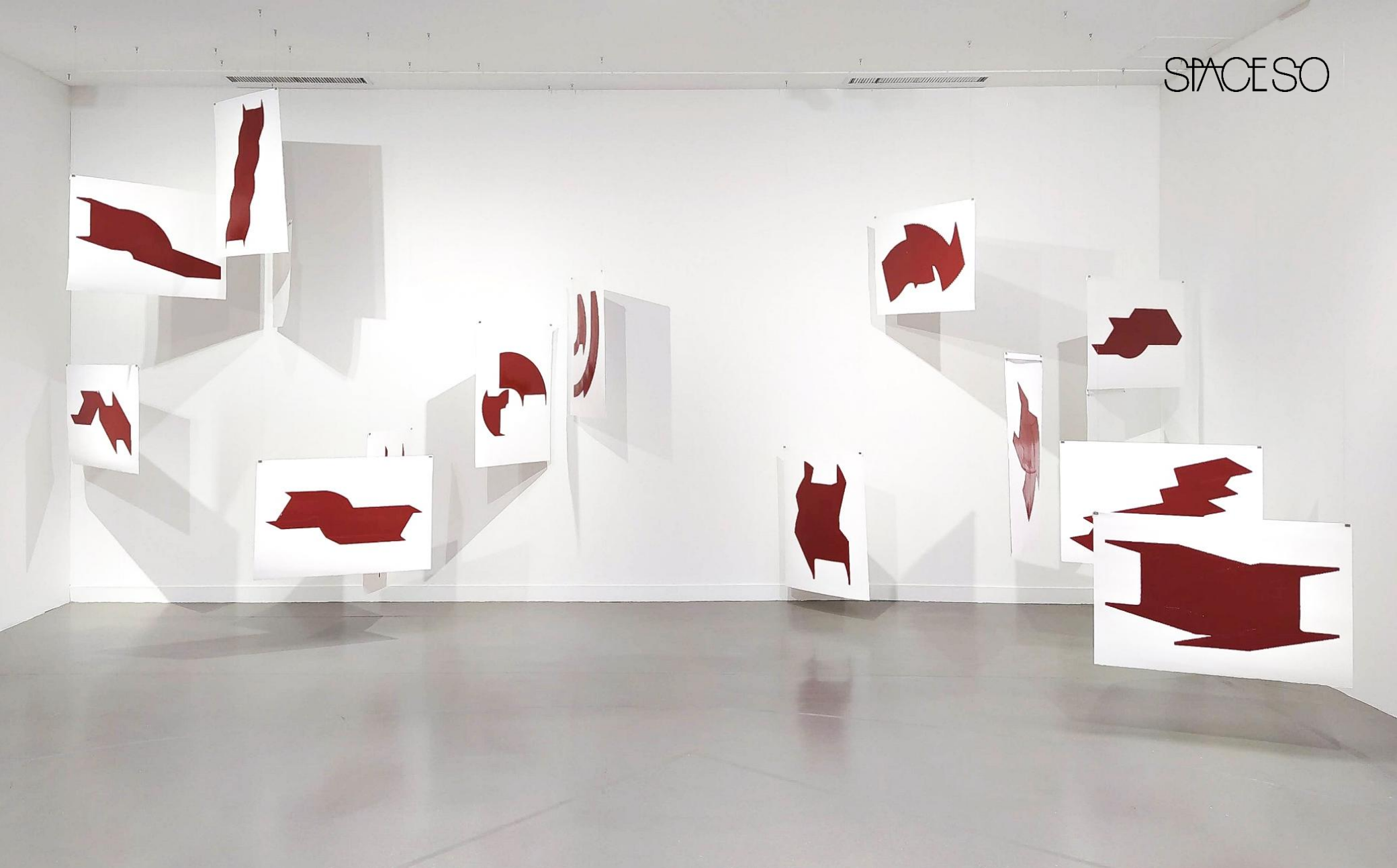
SPACE SO



사물을 관찰하고 다루는 작가이다.

무림 고수가 경공하여 숲을 보듯 아파트 외벽과 지붕을 매끄럽게 타고 넘으며 동시에 지층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세밀한 기록처럼 카메라 줌인-줌아웃의 시점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를 통해 밀도 높은 도심 속 기이한 빛을 발하는 현상들을 찾아다니고 관찰한다. 이들은 아슬아슬하게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현재도 과거도 아니다. 작업을 통해 이런 낯익은 풍경들 이면의 의미와 역사를 원근을 가진 풍부한 입체로 만들고자 한다.

동시에 미술의 다양한 형식을 나누는 조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테면 조각에서의 무게, 부피, 공간. 회화의 화면과 캔버스, 물감. 판화의 공정과 복수의 이미지. 오브제의 중립성. 그리고 모든 형식을 관통하는 시간과 몸이라는 주제. 그 경계에서의 질문이 작업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형식 미학적 작품이 기보다 형식과 형식의 중간을 점유하는 상황을 제시할 것. 그것은 조각이면서 회화이기도 하고 이미지로 읽히지만 동시에 사물이기도 한, 판화의 평면이면서 또한 입체이기도 하다.



Live 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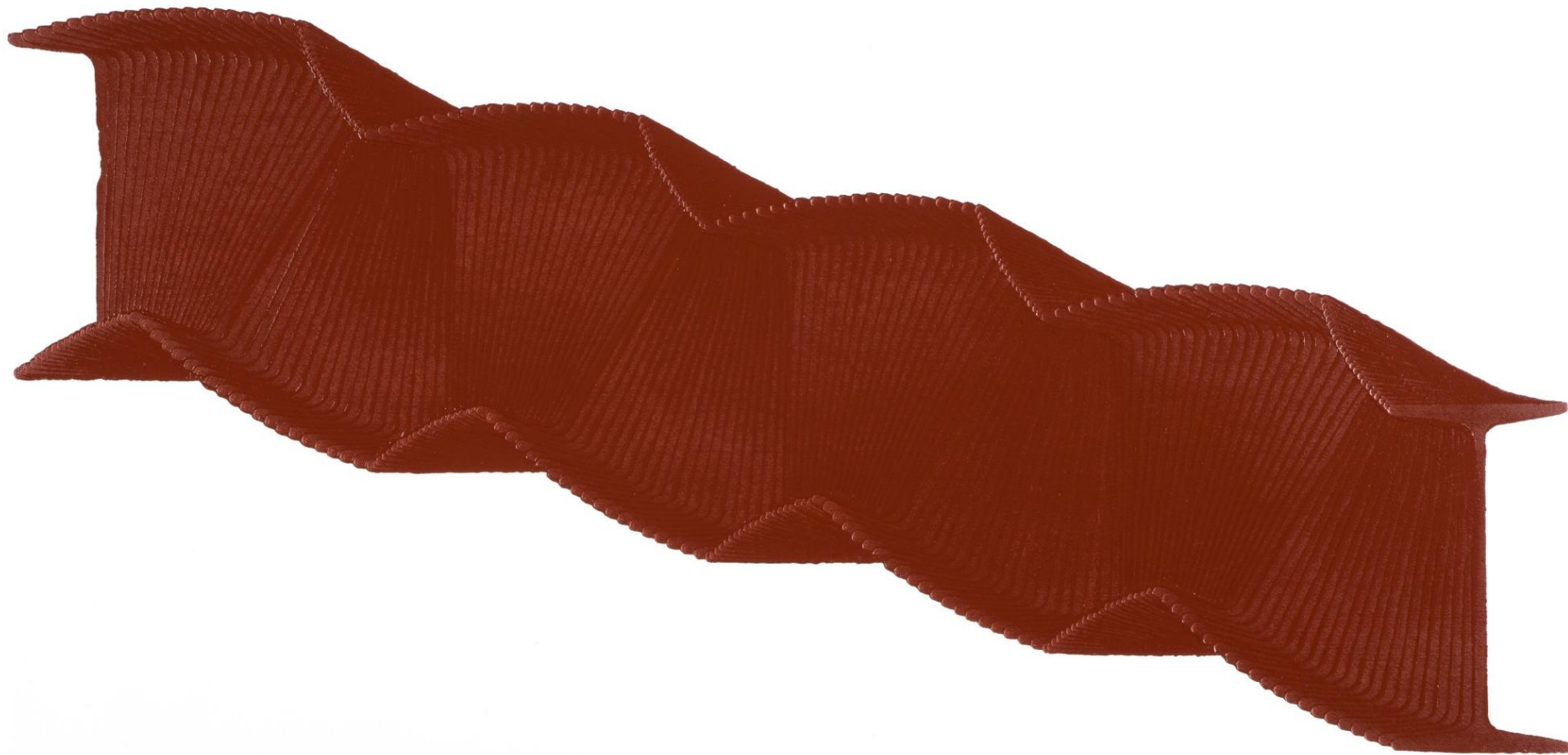
‘형강’은 단면의 형태가 일정하도록 압연해 만든 철강 제품을 총칭해 일컫는 말이다. 이 장대한 강철을 엮어 교량의 트러스 구조를 만들고 건축의 뼈대를 세운다. 형강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익숙한 호명은 H빔 또는 I빔일 것이다. 단면의 형태에 따라 L, T, C형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작명에 근거한다면 형강은 특정 알파벳 금속활자로 봐도 무관하다. 자투리 형강을 작업장으로 가져와 알파벳 면이 바닥(하늘)과 수직이 되도록 세워보았다. 중공업의 하중을 담은 체 직립한 이 철강 오브제를 나는 판화의 원판이라 정의하고 실제 인쇄를 진행해 보기로 한다.

‘방청페인트’는 각종 금속이 물, 산소 등과 결합하여 녹이 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표면에 바르는 기능성 페인트를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이 녹 방지 목적의 페인트 색이 모두 칙칙한 갈색을 띠는데, 방청이란 단어가 생소할지라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면 이 컬러만큼은 익숙할 것이다. 주택 외벽의 가스 배관과 공사장의 철골 구조, 선박의 컨테이너가 모두 동일한 색이다. 즉 이 적갈색이 도포된 상황은 그 표피 아래 사물이 부식(녹)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기표이기도 하다.

먼저 평평하게 다듬은 형강의 알파벳에 적갈색의 방청페인트를 고르게 도포한다. 그리고 형강을 들어 종이 위 미리 그려둔 좌표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자체의 하중에 더하여 형강 무게에 버금가는 누름 쇠를 그 위에 올려놓는데 이는 끈적한 적갈색 페인트가 단시간에 완벽한 알파벳 형태로 인쇄되게 하기 위함이다. 일련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누름 쇠와 형강을 걷어내고 동일한 인쇄의 공정을 반복해서 수행한다. 계획한 형강의 이동을 모두 완료하면 수평의 판화지를 눈높이로 세워서 그 궤적을 확인한다. 적갈색의 추상 덩어리는 화폭에서 떠올라 움직이는 형태와 몸을 획득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다. 짜릿하다.



Live Rust - Odyssey, 2022,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50cm



Live Rus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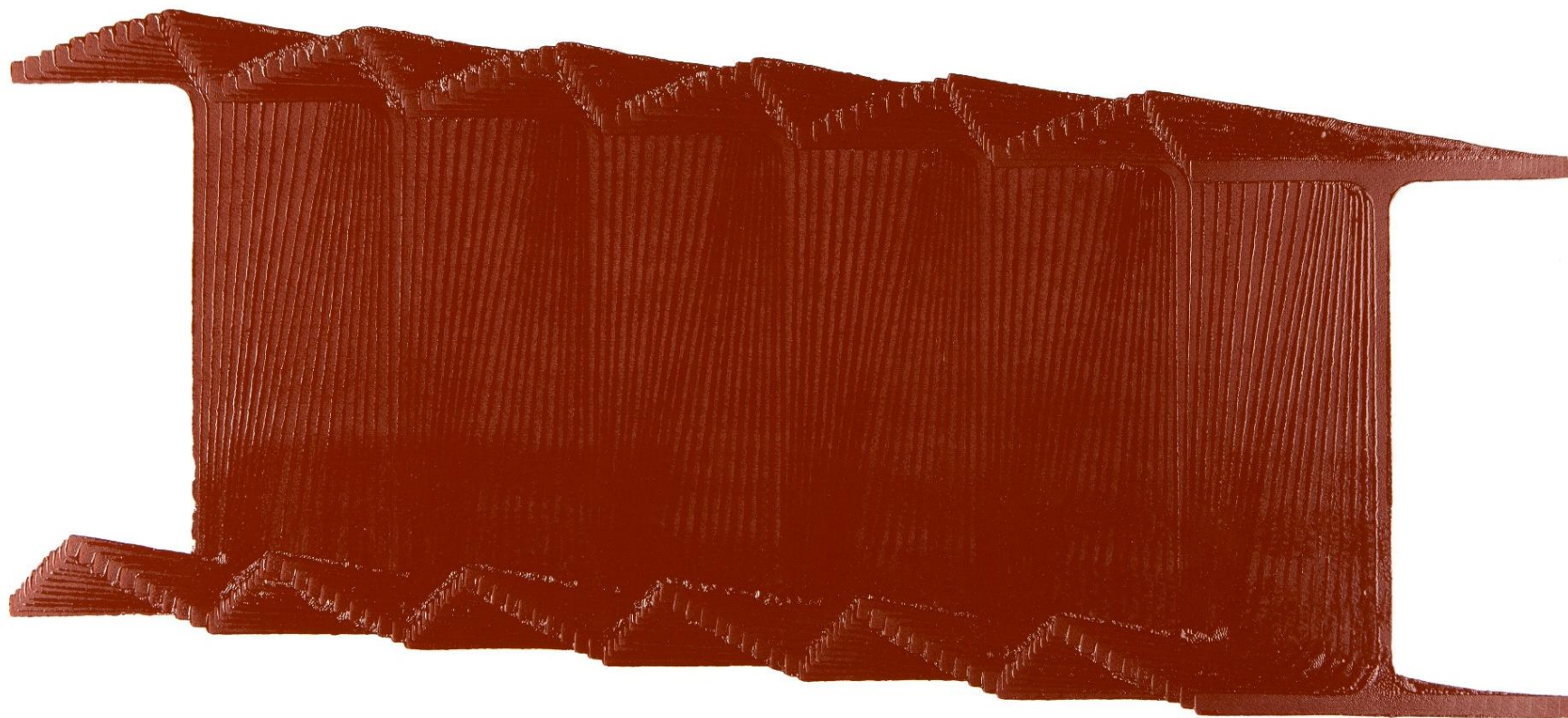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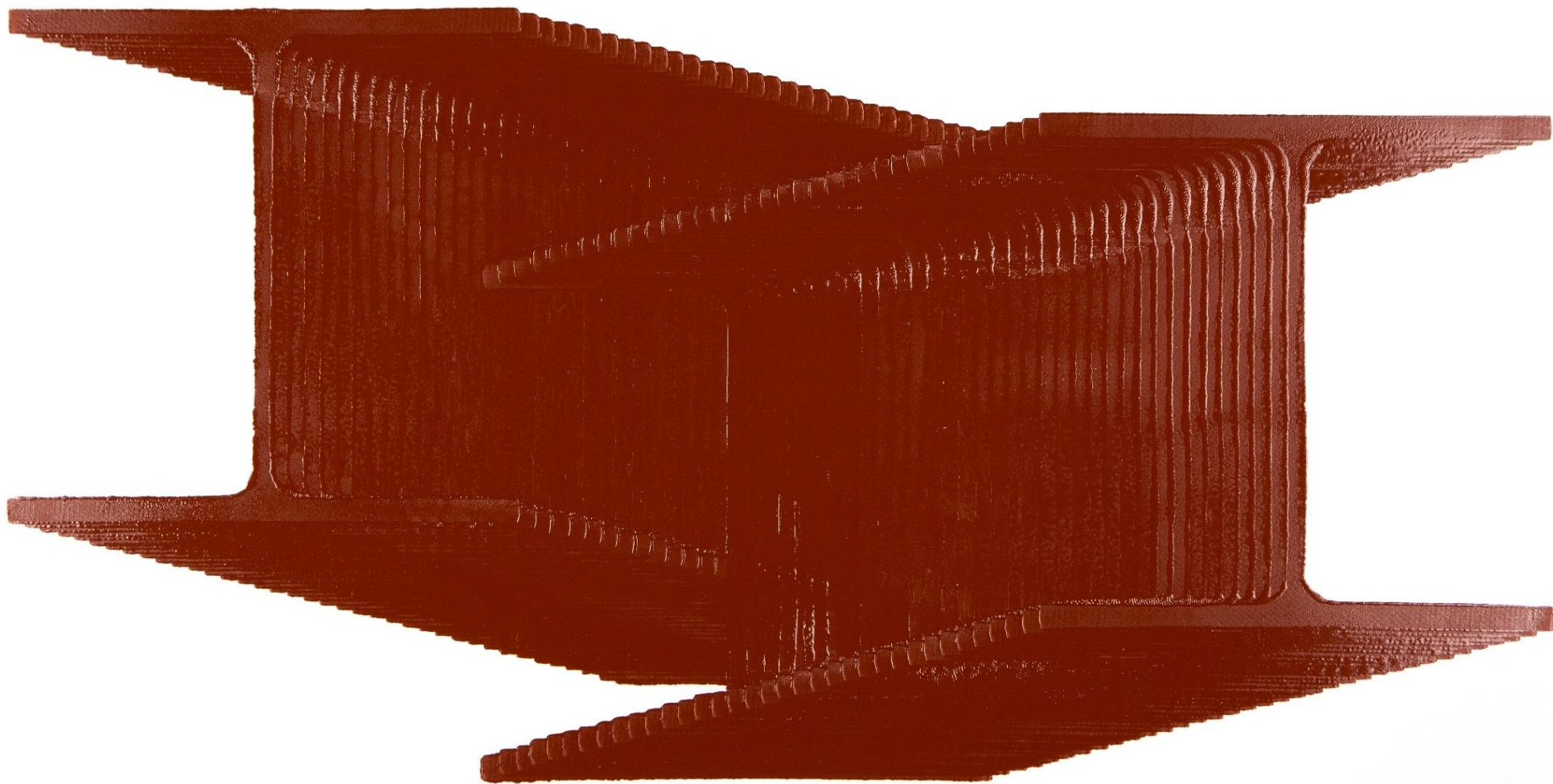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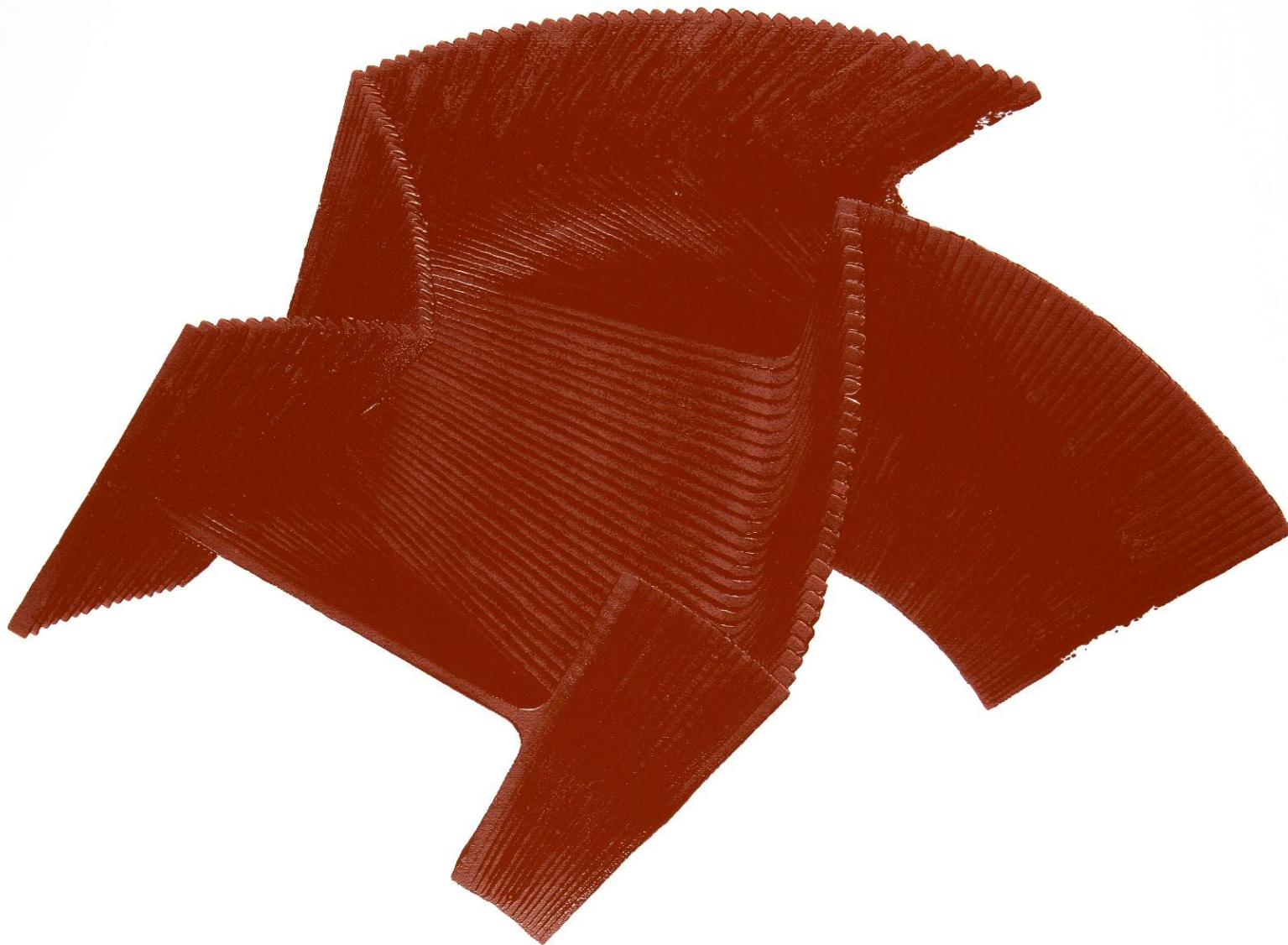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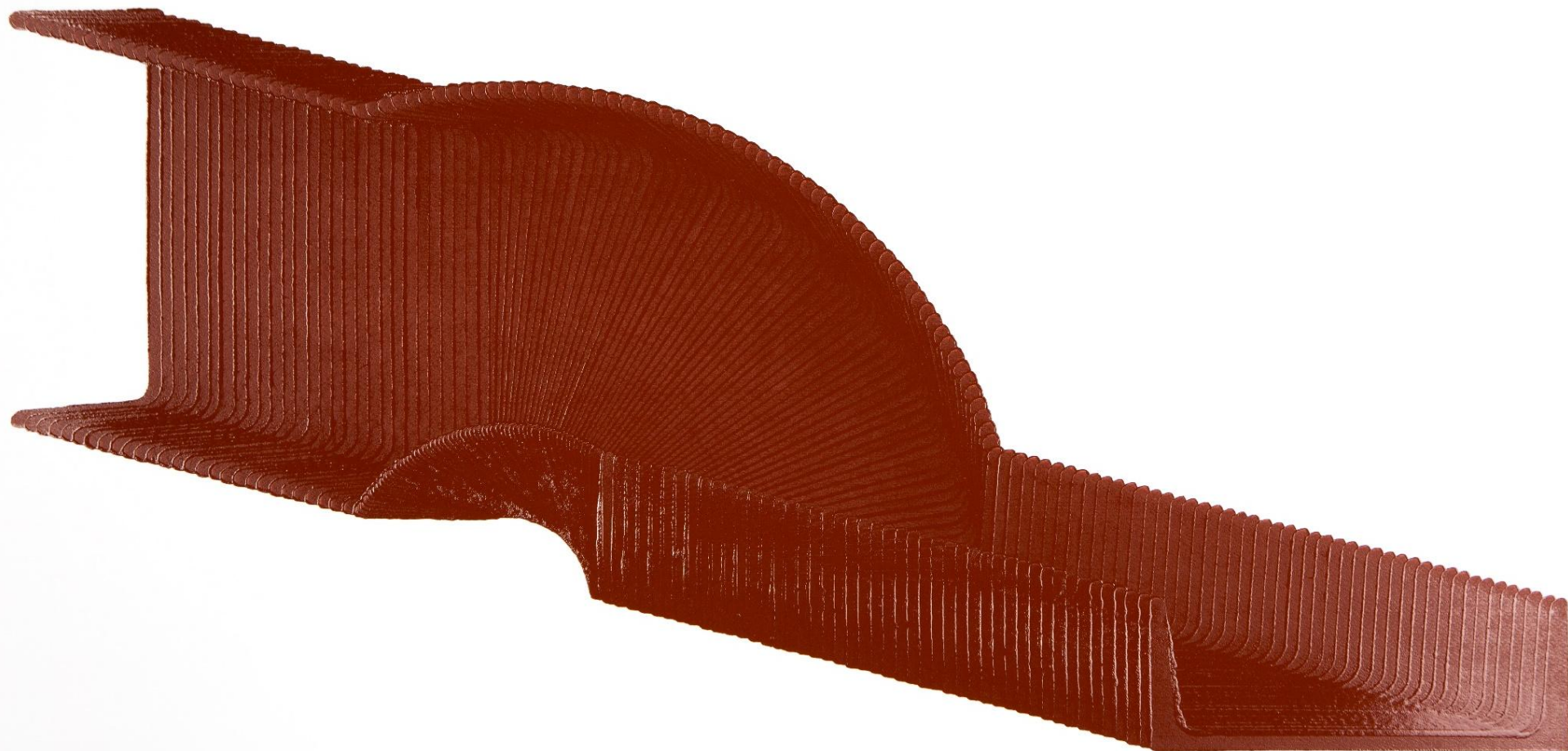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2019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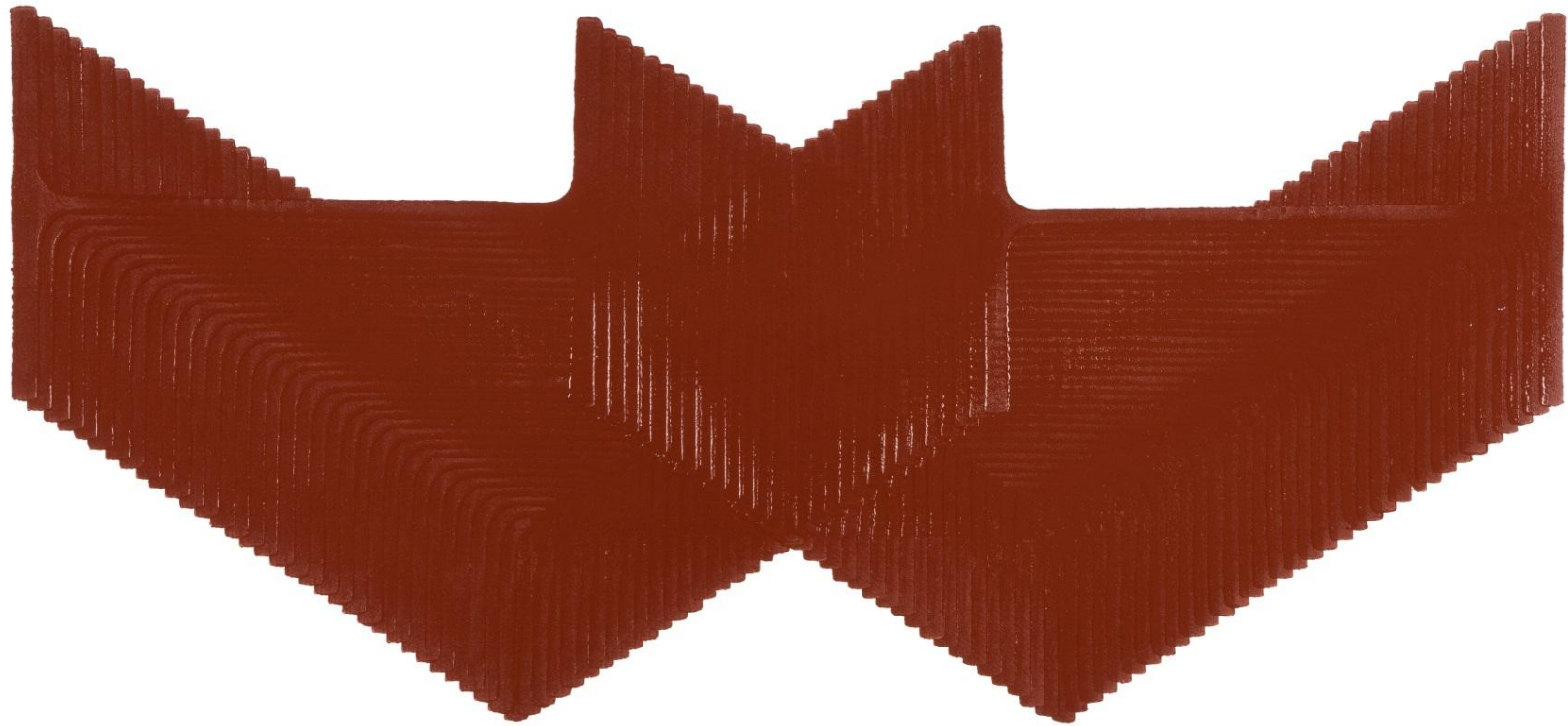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몸짓과 흥분과 짧은 역사¹⁾

'Live Rust'의 붉은 평면은 철제 형강의 꺾적이 남긴 흔적이다. 먼저 문래동이 나 시외의 철강소에서 자투리 형강을 구한 다음 녹을 끓여내고 단면을 완전한 평면으로 다듬는다(녹을 제거한 표면은 방청페인트로 마감한다). H 또는 I 형태의 이 철제 오브제는 내 몸이 운용 가능한 15~25kg의 중량을 가진다. 이렇게 손질한 형강의 단면에 적갈색 방청페인트를 먹이고 판하지 위 미리 표시해 둔 좌표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형강 무게에 버금가는 누름쇠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최초 1도 인쇄가 끝나면 누름쇠와 형강을 걷어내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계획한 형강의 이동을 수행한다. 한번 시작한 형강의 이동은 그 끝에 도달하기까지 쉼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바로 전의 인쇄가 남긴 적갈색 잉크가 마르기 전에 계주하듯 겹쳐 찍어야 하기 에 '출발신호 총소리'가 울리면 형강은 '직선으로 재빨리, 그리고 경주용 배처럼 돛을 숙이며 작은 나무조각 위를 달린다.'²⁾ 경주를 끝낸 적갈색 추상 덩어리는 그 화폭 속에서 각기 다른 운동과 시간, 운율을 지닌다.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와 몸을 획득한다. 프랑스의 풍주의 시 '성냥'은 단단한 마찰로 불붙은 성냥의 발화를 묘사한다. Live Rust를 시에 대입한다면 불은 나이고 성냥은 형강, 타들어 가는 불꽃은 제작 과정의 해프닝일텐데 시의 말미로 갈수록 이런 구분도 모호 해진다. 다 타고 '사제처럼 검게'³⁾ 남은 나무 조각은 육중한 형강인가, 적갈색의 추상 표면인가? 아니면 기진맥진한 내 몸인가?

-
1)~3) 프랑스의 풍주 '성냥' 中 (Francis Ponge - L'allumette)





Live 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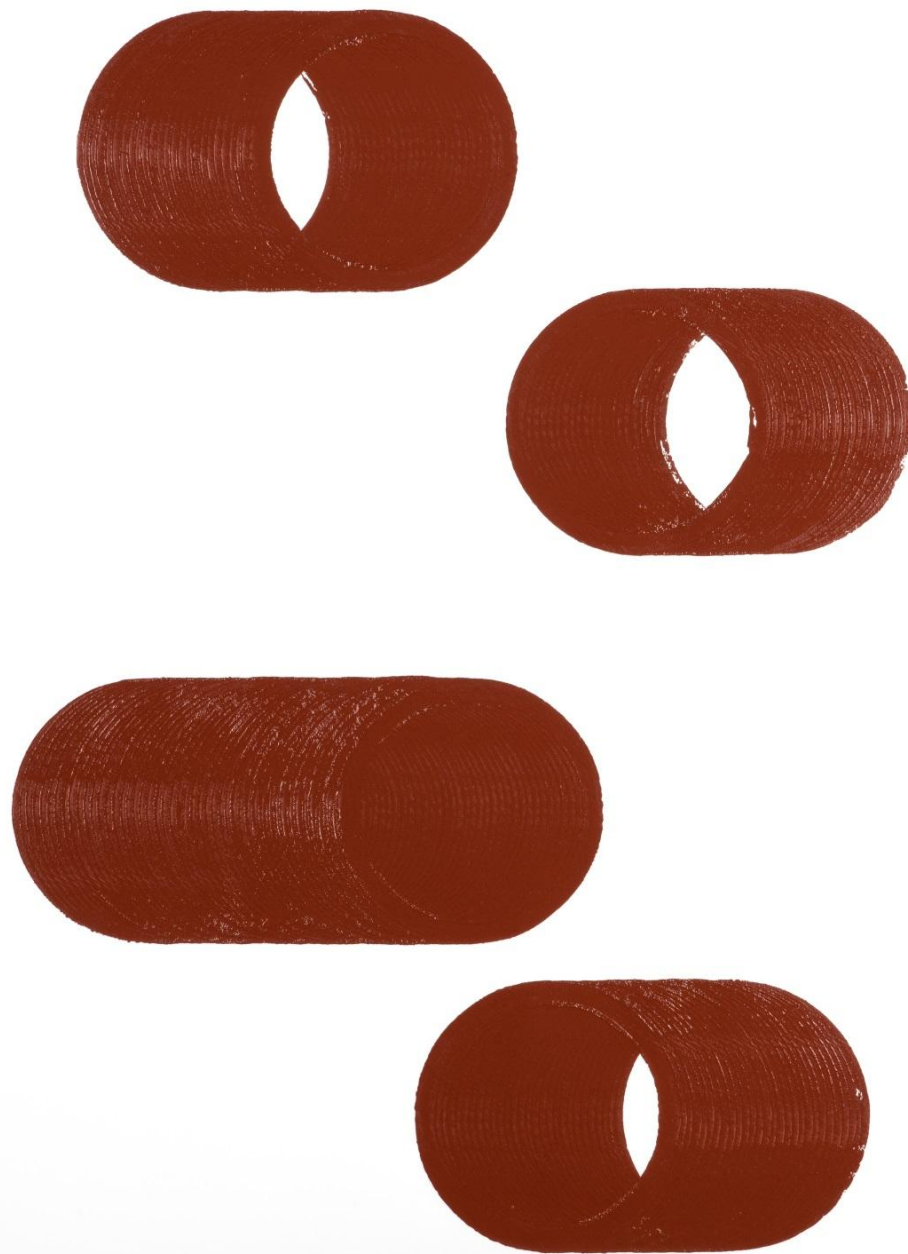
2018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2018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70 x 100cm



Live Rust

방청 페인트의 붉은색- 공사장의 H빔, 선박용 컨테이너, 울지로 철공소의 여러 사물을 코팅하고 있는, 가깝게는 주택 외관을 타고 흐르는 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해 칠한 도료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벽돌 주택과 만나게 되면 자체로 보호색을 띠게 되어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아주 익숙하고 촌스러워 두 번 돌아볼 일 없는 흔하디 흔한- 그 붉은 색.

방청(防鏽)-금속의 산화(酸化)를 막는다. 산화라는 단어 대신 부식이나 녹을 넣어도 무관하다.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본래의 화학 성분이 변하는 과정- 뜨거운 열과 빛을 내며 격렬하게 타오르는 장작불도, 음식이나 유기물이 부패하는 것도, 금속에 녹이 스는 현상 모두 '산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방청 페인트의 붉음은 그 표피 아래의 사물이 '산화'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하는 표식이기도 하다.

바니타스 Vanitas-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실없는 소리 하나. 삶(live)과 죽음(rust)을 아스라이 갈라놓는 방청도료의 그 붉음(red)을 보자. 어쩔 이리도 질북은지, 어쩔 이리도 바니타스스러운 색으로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길에 채고 눈길 한번 받지 못할 만큼 흔하디 흔한지. 심지어 가스 배관뿐 아니라 모체인 적벽돌 외관 전부가 이 붉은 페인트로 칠해진 집들도 가끔 본다. 블랙코미디이다. '메멘토 모리'의 역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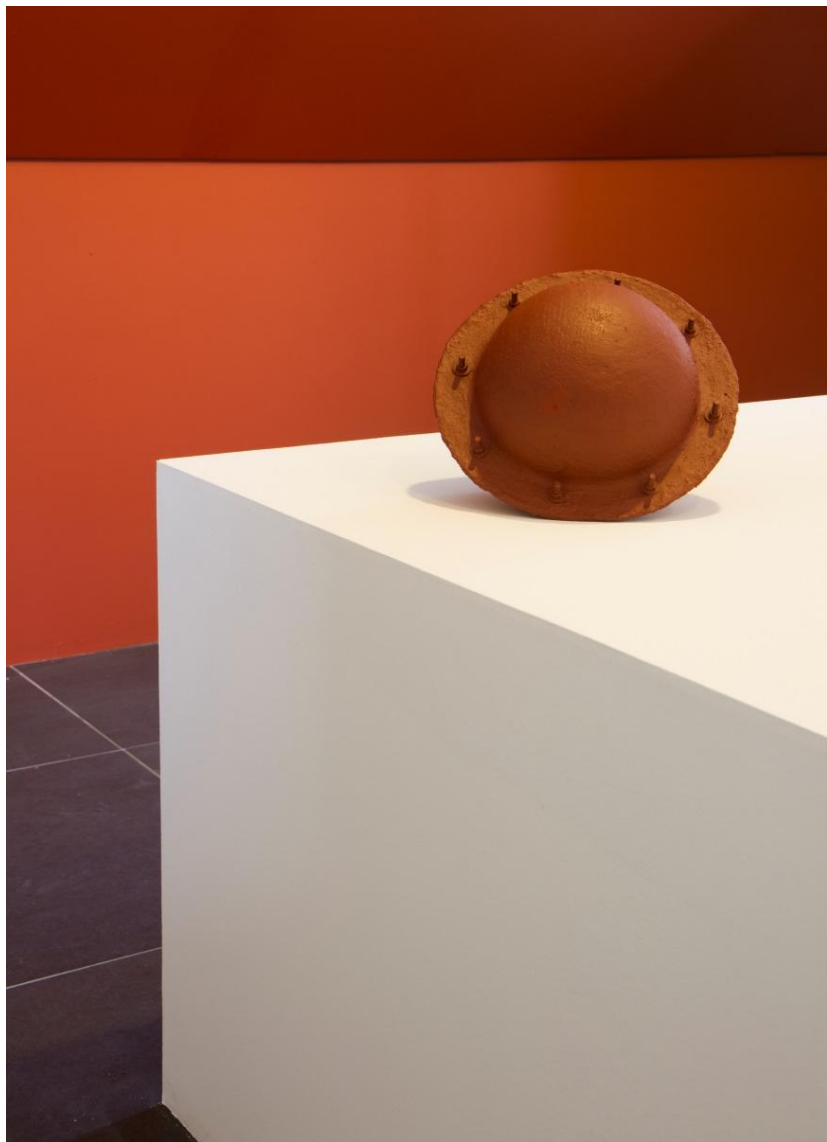
방청 페인트의 또 다른 역할은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색을 뽑아내기 전에 금속 표면에 최초로 바르는 초벌(base)이기도 하다. 그림으로 치면 젯소 칠 과정과 같은데 그 위에 룬트와 유리잔, 석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여기 한국에서는 두텁게 초벌만 겹쌓아 올려 기괴한 붉음을 만들어낸다. 행위로만 본다면 미니멀하기까지 하다.

허나, 진지할 건 없다. 어찌 되었든 연출은 희극이 될 것이다.

변상환
작가노트



《사랑과 평화》 전시전경, 2017, 의외의조합, 서울



Live Rust, 2017, 방청페인트, 생석회, 녹화마대, 27 x 27 x 22cm



Live Rust, 2017, 방청페인트, 생석회, 녹화마대, 가변설치



Live Rust, 2017, 방청페인트, 생석회, 녹화마대, 가변설치

Live Rust - 만자왕(萬磁王)

Live Rust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몸' 그리고 '시공'

육중한 형강을 몸소 들어 그 궤적을 기록한 Live Rust는 판화의 그래픽 이미지만으로의 수렴이 아닌 복합적 감각을 보여준다. 판화지의 프레임은 어느 순간 형강이 떠다니는 무중력의 3차원 공간이 되고, 조각의 하중을 담은 적갈색 표면의 마티에르는 해프닝을 기록한 시간의 증명이면서 이를 수행한 창작자(조각가)의 몸을 보여주기도 한다. 처음 확인한 Live Rust에서 내가 느낀 생경한 감각은 이것이었다.

판화지 한 장 안에 오롯이 몸을 투신하여 형강의 이동을 수행하고 운율의 조율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을 탐구하던 중, 판화지 규격의 프레임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단일 프레임을 무한히 넓힐 수 없다면 남는 선택지는 형강의 이동을 수행하는 내 몸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다. 규칙은 간단하다. 형강의 이동이 판화지 프레임을 벗어나려 할 즈음 동일한 판화지를 덧대어 인쇄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복수의 유닛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Live Rust-만자왕'은 전시장의 특정 지점에서 3차원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제 형강의 장대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 발짝 비켜서면 그 흐름은 분절되고 걸음에 따라 형상은 시시각각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Live Rust-만자왕이 3차원 시공의 Z축을 새로이 확보하듯, 전시장의 관객들은 계단을 걸어 본디 전시장의 벽이었던 발코니에 올라서는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할 것이다. 이는 Live Rust-만자왕의 새로운 몸(조각), 이를 수행한 창작자(조각가)의 몸 그리고 관객의 시점을 연동하기 위한 장치이다.



Live Rust - 만자왕 (萬磁王)

2021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가변설치 (각 70 x 100cm)



Live Rust – 만자왕 (萬磁王)

2021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가변설치 (각 70 x 100cm)

만자왕 萬磁王

마블 코믹스 '엑스맨'의 세계관에서 '매그니토(Magneto)'는 중요한 상징을 지닌 히어로이다. 거칠지만 세상을 정신(Software)과 물질(Hardware)로 이등분했을 때, 그는 후자의 물질을 조종하고 무한대의 물리력을 발휘하는 빌런이자 리더로 묘사된다. (대립하는 항엔 정신 조작과 최고의 텔레파시 능력을 지닌 라이벌 '프로페서 엑스'가 있다) 매그니토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우주적 규모의 전자기장을 자유롭게 변용하고 철과 금속을 이용한 물리력을 능숙히 다룬다. 지표면 아래 철광석을 요동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대륙판을 움직여 도심 한가운데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바닷속 심해의 잠수함을 수표면 위로 가볍게 들어 올리고 수십 개 유도탄의 궤적을 반대로 돌리기도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그시 눈 감고 (눈을 뜨기도 한다) 집중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양손을 뻗어 행한다. 18mm MDF합판 한 장의 무게는 대략 40kg이다. 가로 폭이 1,220mm이기에 양팔을 넓게 벌려 단단히 그것을 잡고 코어와 허벅지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 번쩍 들어 올리면서 기합을 넣는다. "인생의 무게!" 이는 아침 일찍이 현장에 모인 동료 목수들을 웃기려는 내 나름의 청승 개그이다. 생업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이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공간 연출을 위한 가벽을 세우고 그 공간을 채울 집기를 제작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채워진 공간을 철거하는 일이기도 하며, 큰 건이라면 공간 디자인, 집기 디자인, 시공, 제작을 함께 진행하고 후에 철거까지 책임지는 일이다. 주로 프리랜서 목수로 일하다 작년 2020년 2월에는 사업자를 냈다. 난 작가이고 목수는 부업이니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상호를 '30pro'로 지었다. 나머지 70%의 에너지는 항상 창작에 할애한다는 다짐이다. 허나 돈 버는 일이 맘먹은 대로 되던가? 일단 일이 들어오면 100% 에너지는 기본이고 일이 겹치는 시기엔 100+30%의 원기옥을 모아야 한다. 상호를 '130pro'로 바꿔야 할 지경이다.

2019년 여름 타이베이 채류 당시, 나는 본 전시를 계획하며 무심코 구글에 '매그니토'를 검색해보았다. 화면에는 익히 알려진 매그니토의 포스터가 여럿 보이고, 볼드체의 한자가 눈에 들어온다. '萬磁王' 한국식으로 발음해보면 일만만, 자석자, 왕왕. '만개의 자석 왕이라...' 놀랍도록 직관적인 작명 센스다.

다소 비약을 해보자. 붉은 방청페인트를 먹인 자투리 철제 형강을 들어 올리고 뒤집기를 반복하는 변상환 일(一)이 있고 괴력의 매그니토 만(萬)이 있다. 둘 사이엔 형언하기 힘든 내공의 협곡이 가로놓인다. 만약 변상환이 운동량보존의 법칙을 적용하여 부질없는 형강의 이동을 무한으로 확장한다면 그의 일(一)과 매그니토 만(萬)의 간격을 조금씩 줄이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기어이-기어이, 저 작은 범인이, 거대한 형강을, 매그니토처럼 들어 올리는 건 아닐까?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생각하며 웃는다. 동시에 복수의 Live Rust 유닛이 모여 장대한 풍경을 이루는 새로운 Live Rust가 당위를 얻는 순간이다.

2020년 9월-11월의 30pro 사업 농번기를 힘겹게 살아내고, 12월 코앞으로 다가온 개인전을 위해 간만에 Live Rust를 제작한다. 봄과 여름 내내 30kg에 육박하는 자투리 형강을 매일 수백 번 들었다 내렸다 하던 근육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짝 잡은 손안에서 형강은 미끄러지기 일쑤다. 허나 이미 시작한 형강의 이동을 멈출 순 없다. 다시 형강 단면에 방청페인트를 먹이고 단단히 잡고서 기합을 넣는다. "인생의 무게!" 물론 이 청승에 화답하는 이는 없다. 작업은 고독하고, 작업장은 고요하다.

2019년 처음 이 전시를 상상하며 썼던 각본이 판타지 대 서사 히어로물이었다면 시간이 흘러 물리적인 실체의 전시를 선보여야 할 지금, 완성을 앞둔 각본은 생활 다큐물에 더 가까워 보인다. 최근의 다른 모든 문화 기획과 마찬가지로 창궐한 역병 덕분에 이 전시도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다. 그사이 나는 새로운 Live Rust를 제작하고 짬짬이 용병 목수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밥벌이 사업을 꾸렸다. 돌이켜보니 합판을 들어 가벽을 세우는 일과 형강의 궤적을 기록하는 행위가 '저기 식기 건조대에 설거지를 마친 접시의 가지런함과 다를 게 무엇인가?'란 생각이 든다. 작가가 자 생활인인 나는 내 기대보다 항상 조금 남루한 그냥 범인일 게다. 본의 아니게 걸어진 전시 준비 기간이 전시의 장르를 바꿔놓았는지도 모른다. 하여 나에게 부여된 전시 공간, Sema창고의 벽으로 나뉜 세 개의 방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대한 Live Rust를 선보이고자 한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갈치의 투명한 유영처럼. 이 가쁜한 비행이 전시장을 거닐 관객에게 개개의 삶을 노래하는 대중가요처럼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Live Rust - 만자왕 (萬磁王)

2021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가변설치 (각 70 x 100cm)

SPACE SO



2016년에 있었던 앞선 두 번의 개인전과 이후 2018년과 2021년^[1]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개인전은 녹(綠)과 적(赤)이라는 두 가지 색깔로 강하게 대비된다. 녹의 시기는 플로랄폼과 같은 가볍고 연약한 재료에 옥상 방수 용 녹색 우레탄을 칠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고, 적의 시기에는 15~3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형강빔에 적갈색 방청 페인트를 입혀 종이에 좁은 간격으로 찍어 누르는 작업을 선보였다. 녹과 적이라는 색의 대비뿐 아니라, 사용한 재료의 중량감과 다루는 방식에도 상반된 차이가 드러난다. 잠시라도 손에 힘이 들어가면 쉽게 부서지는 플로랄폼으로 형태를 제작하고 표면에 방수 우레탄을 덮어 견고함을 가장했던 녹의 시기와 달리, 적의 시기의 작업에서는 육중한 형강빔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찍어 누르기 위해 다른 의미에서의 힘 조절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무르고 연한 재료로 굳고 단단한 조형을 선보였던 작가는 이제 무겁고 굳건한 재료로 섬세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녹과 적이라는 색의 대비만큼이나 대조적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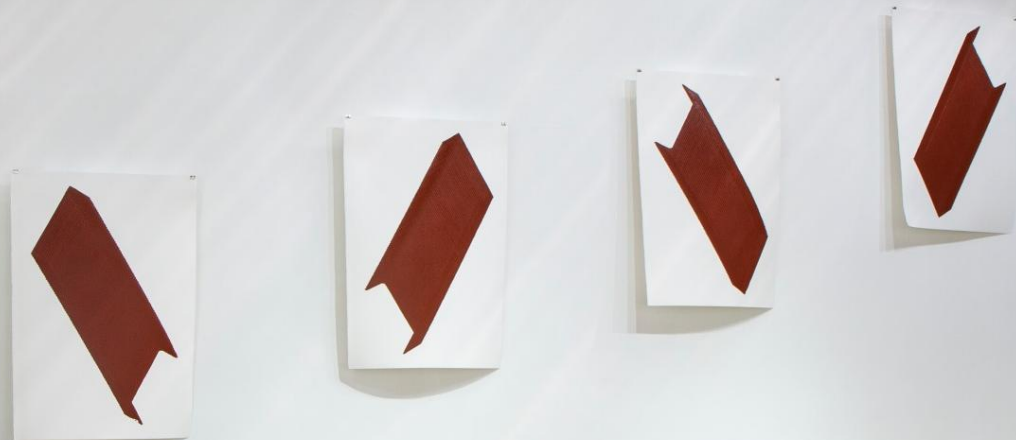
변상환의 예술에 관해 말할 때, 그 어떤 규범적인 형식 논리로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고 그 중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판화도, 조각도, 회화도 아닌 모호함으로 몰아가는 지점은 비평가에게 순수한 호기심과 쾌를 유발하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는 그의 작업을 조각으로서 설명해내려 하고, 누군가는 판화로서 정의내리고 싶어하며, 다른 누군가는 추상 평면의 형식 논리로서 해석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변상환은 형강빔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 내리는 그저 작은 사건을 일으켰을 뿐이고, 그 결과들로부터 발생하는 비평적 감상에 대해서는 짐짓 물러서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시대 미술이 지난 미술의 역사를 참조하고 동시에 극복하며 새 것이 아닌 새 것을 창안해내고 있는 그 내적 논리의 비평적 모서리가 이미 작가의 단련된 조형 감각에 들어서 있는 것을 반증한다. 형식이나 매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작가는 설불리 비판적이거나 해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정의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관객들은 목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변상환이 창안한 조형적 가설과 논리는 목격자들의 목격담 사이에서 구전될 뿐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융합되거나 전체적 맥락에 대해 쉽게 단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로 인해, 형식적인 모호함 가운데서 조형적 존재감은 강하게 발현된다. 결국 감상과 비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목격자가 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로소 관객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 예술적 경험을 했다고 여기게 되는 임계점의 순간에 있게 된다.

-

[1] 변상환은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지원을 2020년에 받아 원래 그 해에 개인전을 치렀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공립 미술관의 휴관으로 인해 2021년 2월에 개인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윤민화 (전시기획자)

개인전 《생물 은-갈치》 전시서문 <탐구의 무게를 짊어지고 시간의 나선 계단을 걷는 오디세우스> 중



Live Rust - C.77

2021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각 100 x 70cm

Live Rust – Odyssey

2021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75 x 70cm

Live Rust - Odyssey



Live Rust - Odyssey 23002 (β -6),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광 활자 인쇄, 12.5 x 42.5cm

Live Rust는 형강의 하중을 컨트롤하는 창작의 강박적 몸짓이 만들어 낸 흔적과 그 시간이 집적된 결과물이다. 관객은 어렵지 않게 적갈색 추상 표면에서 레이어의 시작과 끝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차원 선형의 시공을 상징한다. 만약 Live Rust가 한 번의 도약이 더 가능하다면 무엇을 놓아버리고 어떤 공상을 해야 할까?

버뮤다 삼각지대로 사라진 배들이 있다.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 지구에 3차원의 시공이 뒤섞이는 작은 구멍을 상상한다. 아직 관측된 바 없지만, 이론상 존재할 수 있는 웜홀은 다른 시공을 연결하는 원형의 창 또는 터널로 묘사된다. 만약 그 오묘한 원형의 경계를 건너 이편의 깊은 시공의 단절을 저편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감각일까?

Live Rust-Odyssey는 3차원을 넘어선 우주적 시공을 상징한다. 마치 동일한 해프닝을 공유하는 평행이론의 α 와 β , 또는 웜홀을 사이에 두고 이편과 저편에 존재하는 천체들처럼. 만약 복수의 적갈색 형상을 하나로 합친다면 꺾과凸起처럼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허나 이 프로젝트의 미덕이라면 이들은 서로 먼 곳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행성처럼 존재하기를. 내 작업실 한켠과 전시장의 허공에, 그리고 당신의 집무실 벽 잘 버려진 타원의 경계로.



Live Rust - Odyssey 23003 (α)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0 x 69cm

-

Live Rust - Odyssey 23003 (β)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0 x 69cm



공간의 시인: 변상환과 도시

도시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변상환이 추구해 온 다양하고 방대한 작품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일상 속 주변 사물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상환은 사물의 속성을 복제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관심을 도시풍경의 구성구석까지 확장한다. 그의 설치 작업들은 한국인이거나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상징과 의미 사이의 분명한 대조에 의해 연극적 성격을 띤다. 또한 당대의 산업 문화적 요소들로 심상을 짓는 시인이나 주술사가 취하는 방식으로 조합한 감각을 본인의 작품들에 제시한다. 변상환은 객관적이고 인류학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주변 환경을 관찰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작가만의 감성적 상상력과 결합되어 작품의 의미로 드러난다.

건축물과 산업기반 구조물에 자재로 사용되는 H빔 등 강철 구조물의 녹 방지용 빨간 페인트는 산업 구조물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변상환 작품의 주제이자 주재료이다. 작가는 H빔의 단면을 사용해 패턴을 반복적으로 찍어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시간성과 육체적인 노력을 형상화한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써 탄생한 작품은 기술적 메커니즘에 추상성이 더해진, 역동성을 띠는 기하학적 구성과 강렬한 활자 이미지로 구성된 거대한 조각이자 '눈으로 감각하는 시'이다. 작가는 현대 건축의 표준인 강철 H빔의 단면을 사용하여, 미니멀리즘 시각 언어를 연상시키는 연작을 만들어 낸다. 또한 H빔 단면의 궤적이 종이 위에 남아 새로운 상징 언어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지점은 그의 작품이 구성주의와 퍼포먼스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직접 무거운 강철 덩어리를 손으로 다루며 남긴 연속된 행위의 흔적들은 시간과 움직임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정직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마치 점토를 다루듯이 변상환은 강철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물 지붕 방수재로 사용되는 녹색 도료 또한 한국 도시 전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료이다. 한국인들은 이 녹색이 습기와 비를 차단해 주는 방수재의 색임을 바로 알아차리겠지만, 때로는 뽀뽀한 건물 옥상을 덮은 이 색이 공중정원, 즉 밀집된 도시 위에 펼쳐진 '에덴'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단단한 것과 부드러운 것, 강철과 스펀지, 자연과 그것의 부정 또는 극복과 같은 것들은 초도시화를 목격하고 있는 변상환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모티브이다. 작가는 새롭게 만들어진 주변 환경의 혼합체 속에서 숨겨진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예술가이자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 속에서 보편적인 홍수의 메타포, 노아, 재해 후 지구의 인구 증가 등의 내용은 기후 위기, 생존 등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다. 변상환은 설치 작업을 통해 생명의 영역에서부터 불활성과 산업 영역, 정체성에서부터 형태 없는 존재로의 변화, 그리고 기하학의 과도한 형식성에서부터 일상의 추상까지 진지하게 탐구하는 작가이다.

바르토메우 마리, 독립 큐레이터



Live Rust - 작은 만자왕 + Odyssey: α ∨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5 x 65cm

-

Live Rust - 작은 만자왕 + Odyssey: β ∨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5 x 65cm





Live Rust - 작은 만자왕 + Odyssey: α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5 x 65cm

Live Rust - 작은 만자왕 + Odyssey: β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5 x 65cm



SPACE SO



Live Rust - Odyssey 23001 (α)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00 x 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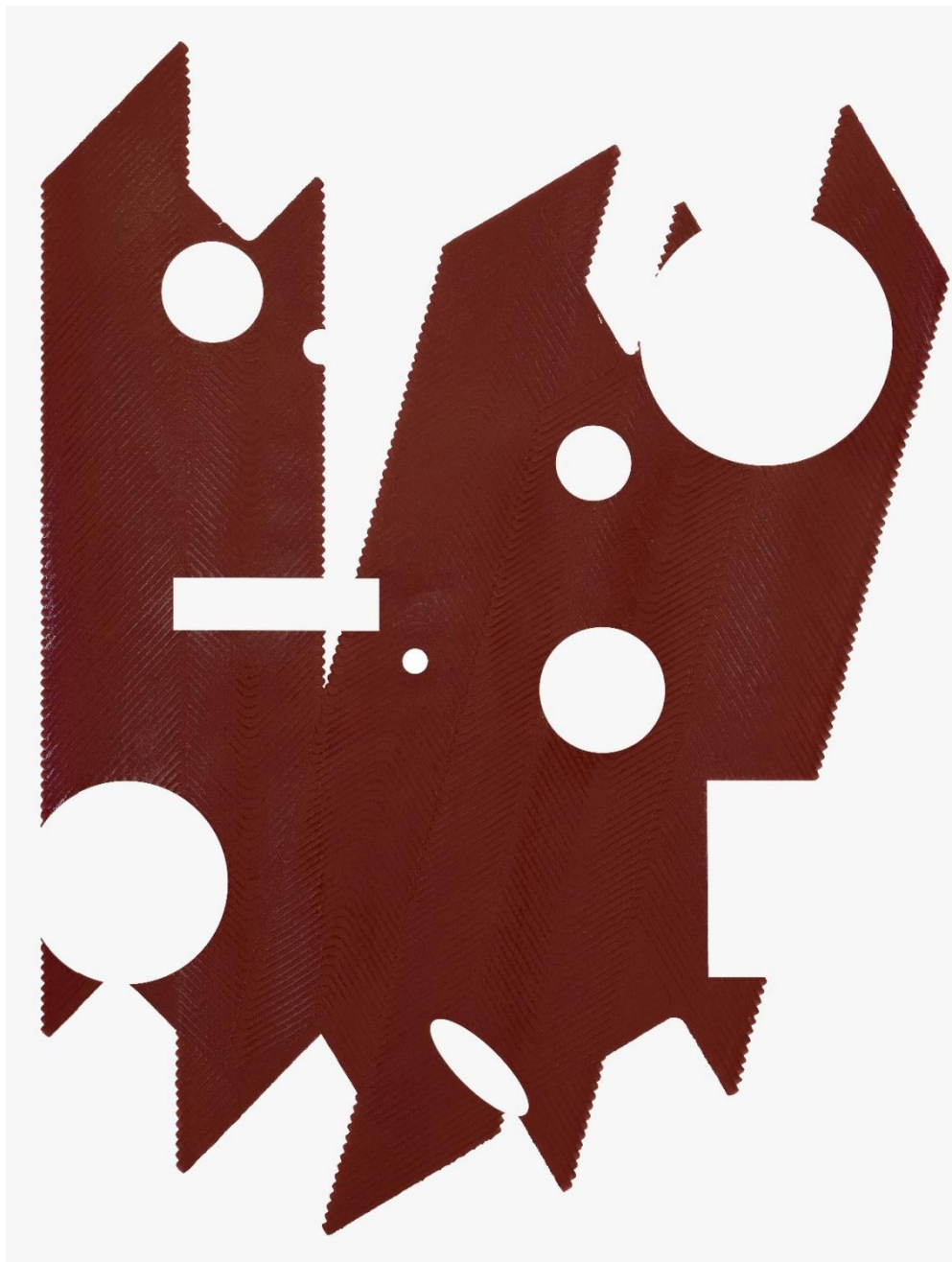


Live Rust - Odyssey 23001 (β)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00 x 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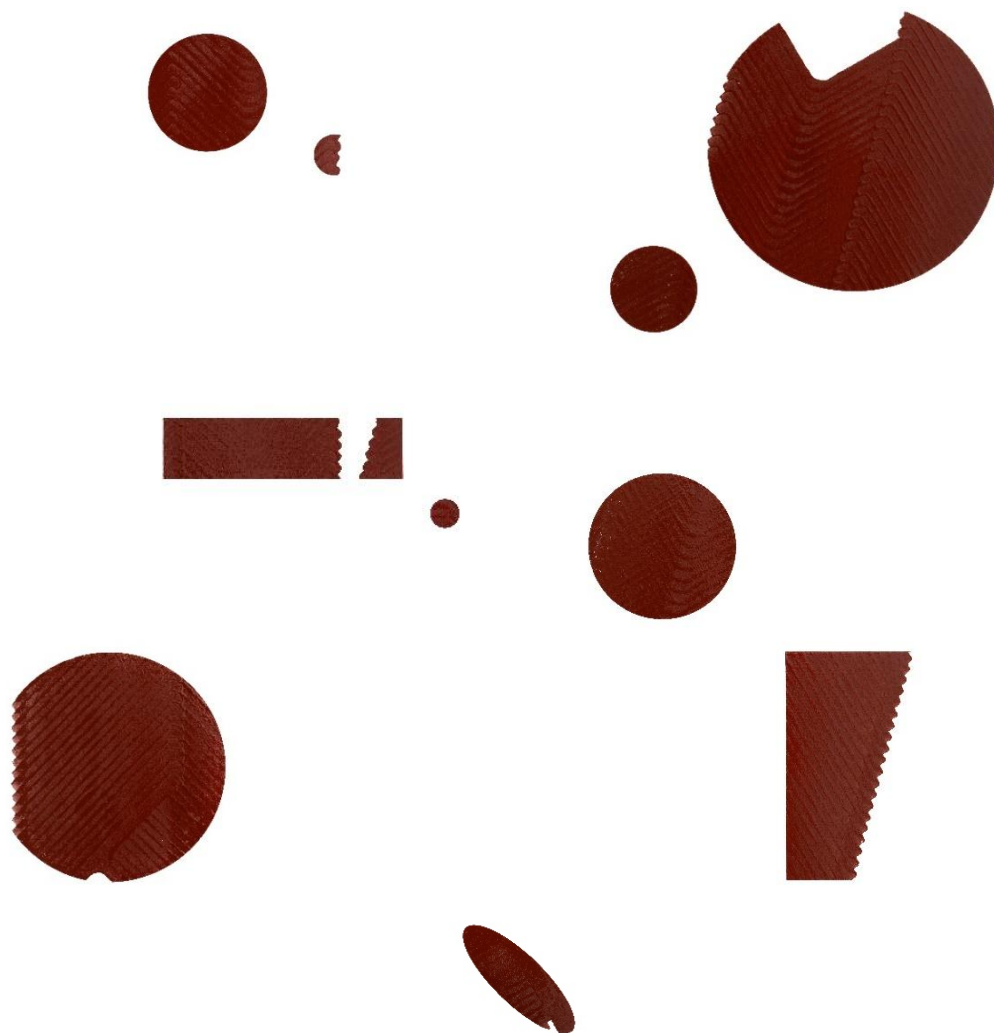
SPACE 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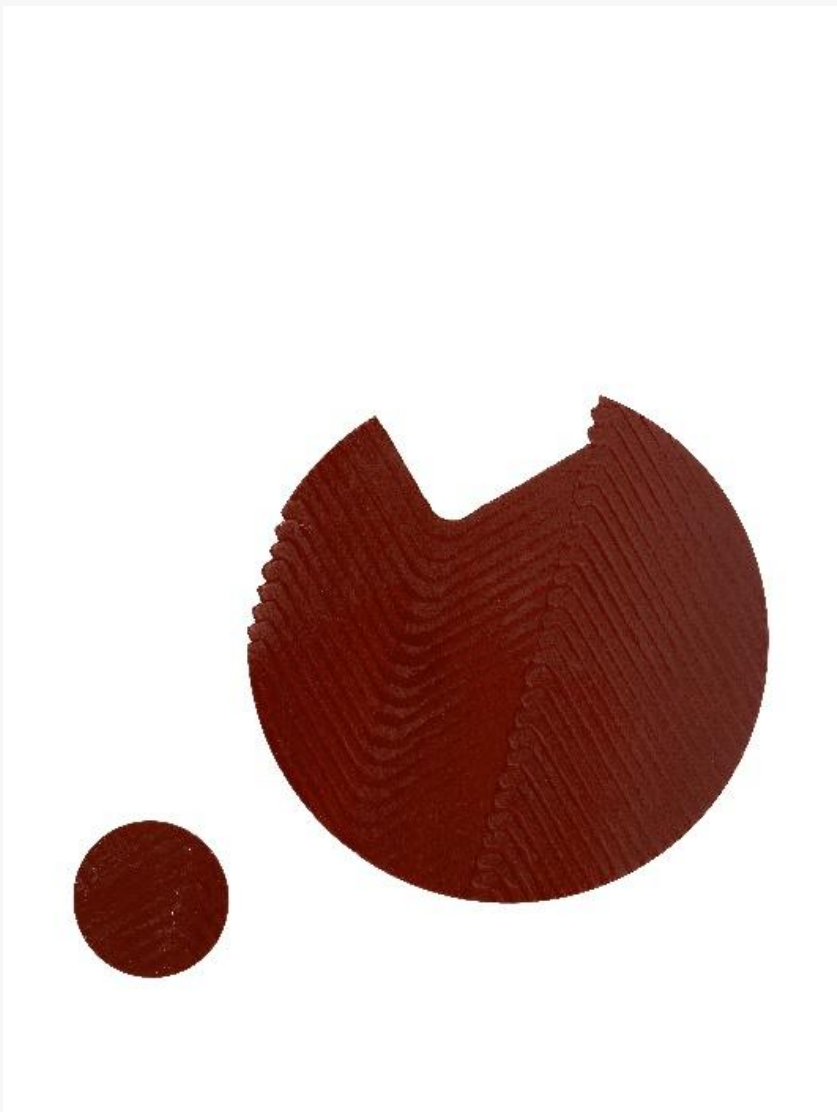


Live Rust - Odyssey 23002 (α)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124 x 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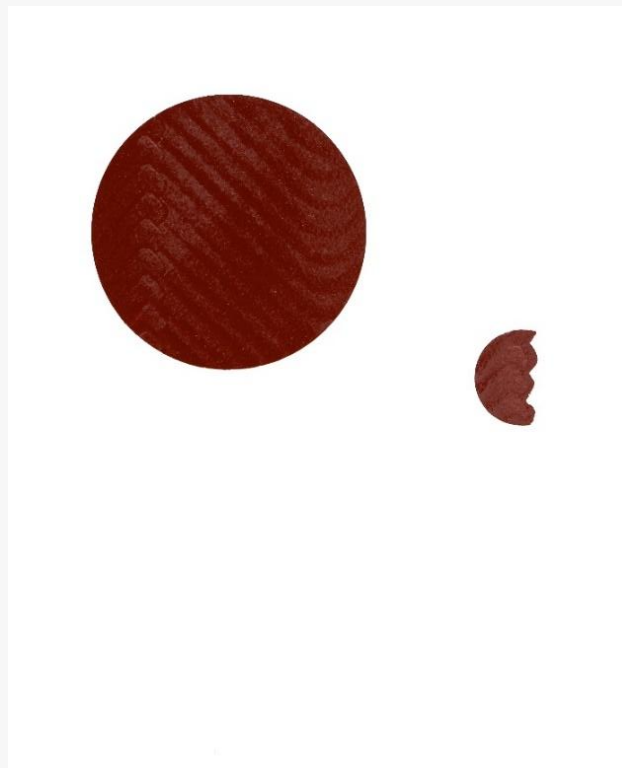




Live Rust - Odyssey 23002 (β-1)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53 x 41cm



Live Rust - Odyssey 23002 (β-2)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28 x 23cm



Live Rust - Odyssey 23002 (β-3)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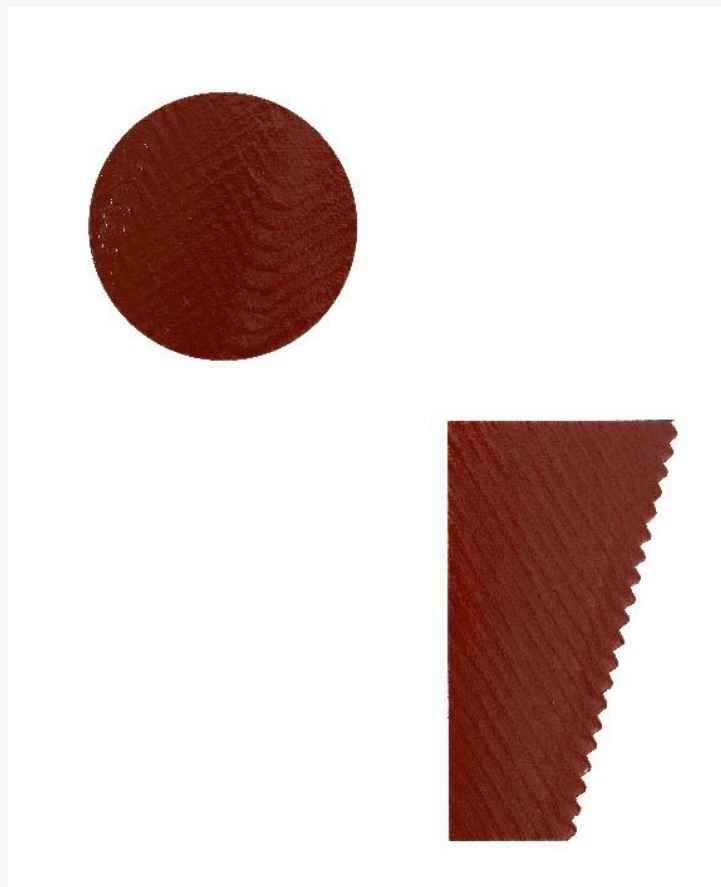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32.5 x 32cm



Live Rust - Odyssey 23002 (β -4)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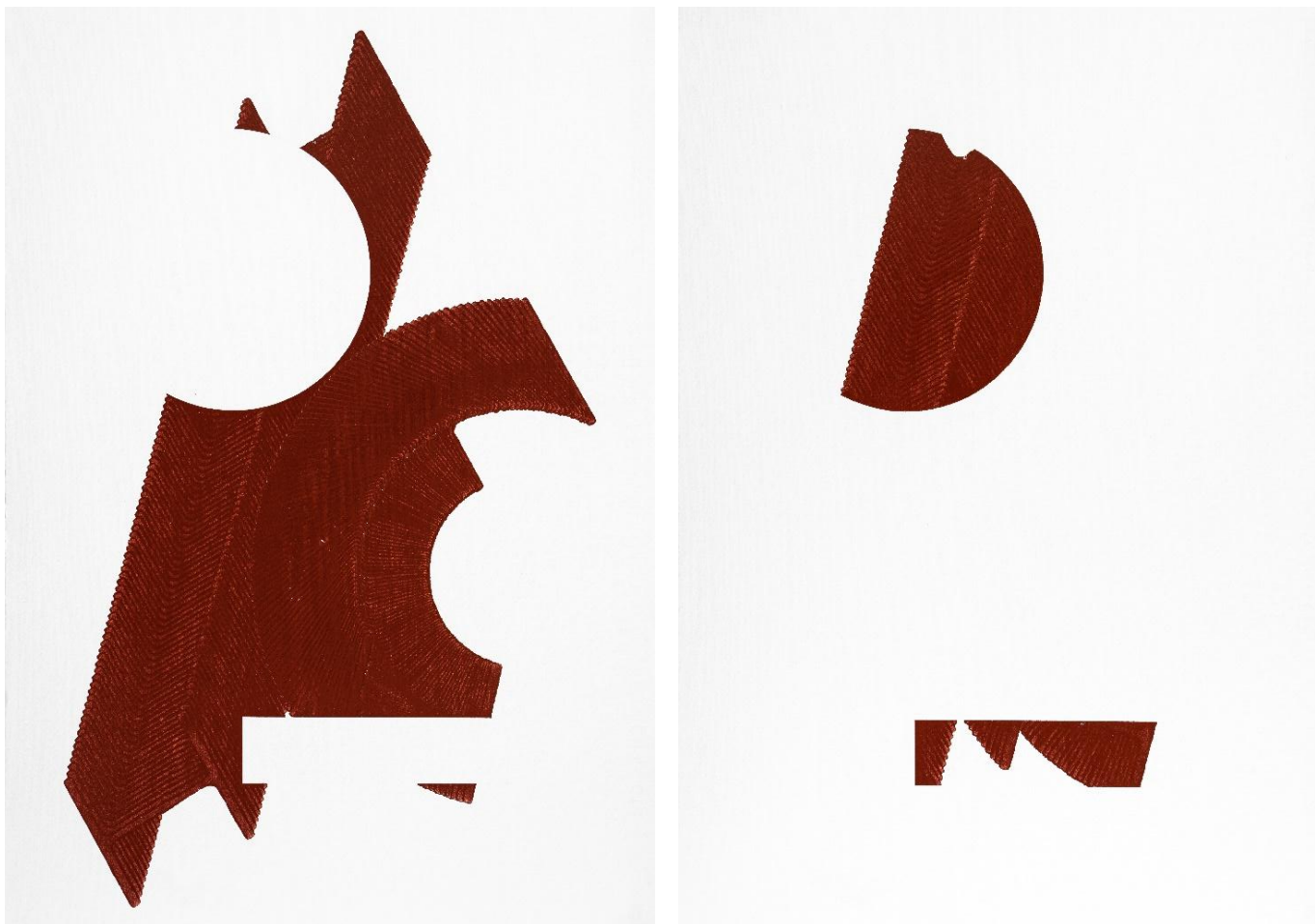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광 활자 인쇄, 26 x 16.6cm



Live Rust - Odyssey 23002 (β-5)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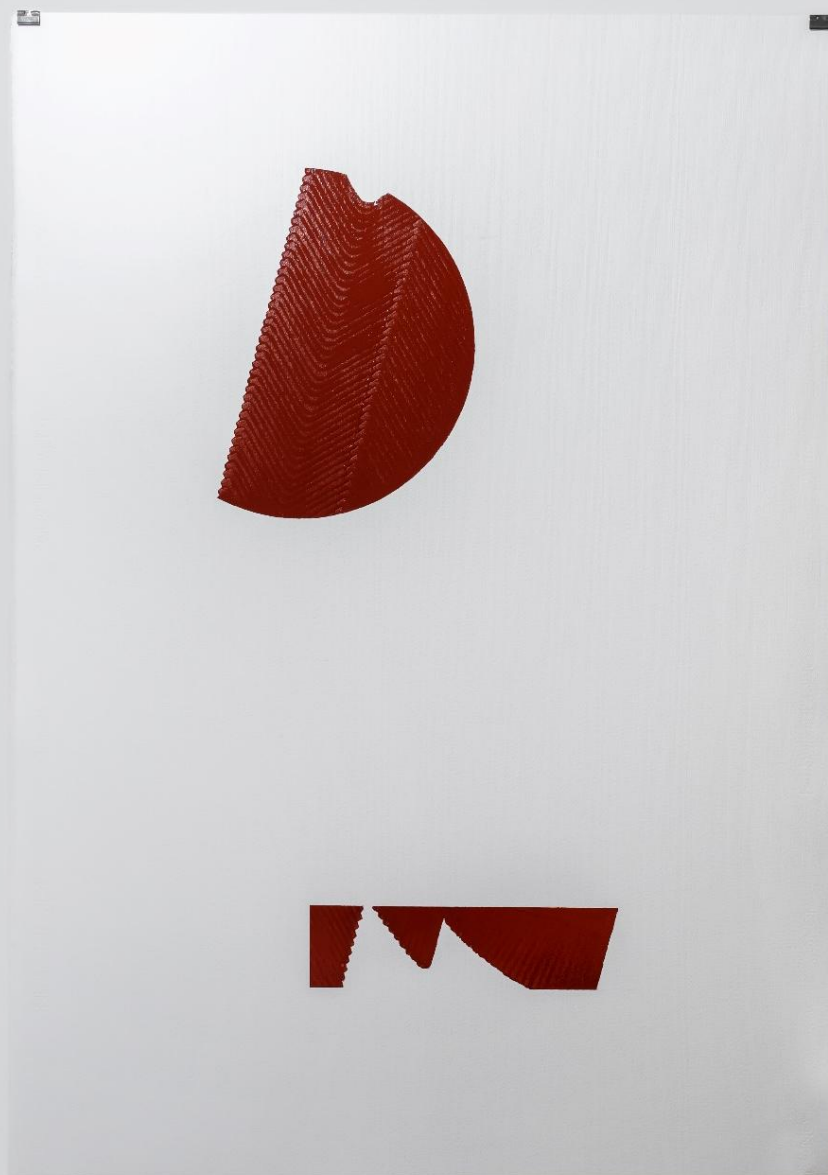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41 x 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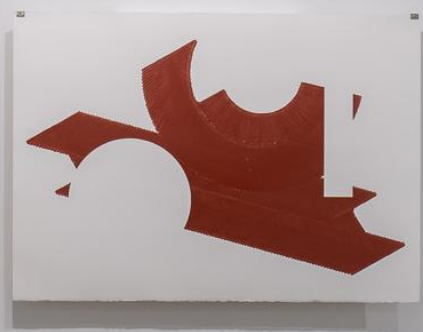


Live Rust - Odyssey no.2206 (α), (β)

2023

방청페인트, 종이, 형강 활자 인쇄, 각 100 x 70cm





b. 1986

- 2018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 20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학과 졸업

Solo Exhibition

- 2024 가슴을 파고드는 공, 새공간, 서울
- 2022 손은 눈보다 빠르다, 스페이스 소, 서울
- 2021 생물은-갈치, SeMA 창고, 서울
- 2018 흥분과 몸짓과 짧은 역사, 스페이스 소, 서울
- 2016 서늘한 평화, 차분한 상륙, 스튜디오 MRGG, 서울
- 2016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24 2024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스틸, 지금도 움직이는', 영일대 해수욕장(주최: 포항문화재단), 포항
- 2024 오픈 에어 뮤지엄_풍납토성, 풍납토성 일대(주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24 EDITION: Who Sets the NUMBER?, 스페이스 소, 서울
- 2024 Keep Going #3,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23 The Art Plaza : 을지미로 by IBK, 기업은행 본사 옆 지하 아케이드(주최: IBK 기업은행), 서울
- 2023 다이얼로그: 마인드 맵, 플랜트란스 성수플래그쉽(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 2023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2023 차원의 막, 휘슬, 서울
- 2023 종이로 만든 거울: 시간조각모음,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 2023 뼈와 살,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서울
- 2022 METAL FLUID: 은반은 뜨거운 빛으로 너울대다, 박태준기념관, 부산
- 2022 5 FIVE Vol.2, 스페이스 소, 서울
- 2022 새의 자리, 임시공간, 인천

- 2020 루트 메탈리카-철의 시간, 역설의 장소, 을지예술센터, 서울
- 2020 판화, 판화, 판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경기도, 과천
- 2019 가능한 최선의 세계, 플랫폼엘, 서울
- 2019 번외편 : A-Side-B,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9 숲에 관한 어떤 실험, 갤러리 이마주, 서울
- 2018 만렙,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 2018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스페이스 원, 서울
- 2018 환상적인 부수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7 도시채집, 부평아트센터, 인천
- 2017 사랑과 평화, 의외의조합, 서울
- 2016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6 우연사각,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 2016 서울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5 지금여기, 장님 코끼리 만지듯, 공간 지금여기, 서울
- 2015 삶은 어찌 이리 느리며 희망은 또 어찌 이리 격렬한가, KT&G 상상마당, 서울
- 2014 DV-VA, 문화아카이브 북, 서울
- 2014 This Plus,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12 AR페스티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
- 2011 타인의 선택, 갤러리 이즈, 서울
- 2011 BEST OF BEST, KT&G 상상마당, 서울
- 2011 IN THE CITY, 충무아트홀 갤러리, 서울

Grants and Residencies

- 2019 관두미술관 레지던시, 타이베이
- 2019 금천예술공장 10기, 서울
- 2020 SeMA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컬렉션, 과천